

# 정례브리핑

2021.7.16.(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하여 지난주 일주일간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라 시간당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들을 제한하여 시설 내의 밀집도를 낮추고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시간당 이용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원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남북피해자기념관도 시간당 이용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자료센터도 오전 시간대 10명, 오후 시간대 10명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도 그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각 시설별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시설들을 이용하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은 장차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외부 일정을 취소·조정하고 부내에서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통일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해서 소속기관들의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써 모두 설명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사전에 질문주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하여 유엔 측에 회신한 내용에 대해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방식 일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공동서한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답변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설명 노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관련하여 통일부 방문일정 있는지와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정례 협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내용은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협의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계기를 통해 관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까지 해서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끝>**